

2024년 2월 25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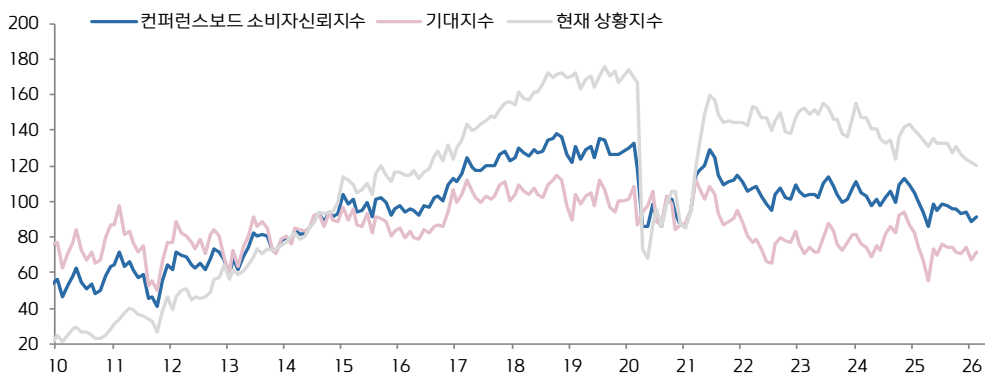
미국 소비심리 반등 이면의 구조적 우려 요인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1.2를 기록하며 1월(89.0) 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2024년 말 고점(112.8)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며, 세부 항목별로도 기대지수는 상승한 반면 현재 상황지수는 하락하는 등 혼재된 흐름을 보였다.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가 다소 완화되면서 1월 하락 이후 2월에는 소비자신뢰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 여건에 대한 인식은 소폭 개선되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중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을 차감한 노동시장 현황 지표가 0.6%p 상승한 +7.4%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가 풍부하다”와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은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확대를 시사하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채용 기준이 높아지면서 구직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 방향에서 접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소비자신뢰지수 조사에서도 물가,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에 대한 언급이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원, 가격 통제, 공급 확대 등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대응이 금융시장 내 정치적 리스크를 자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세부 항목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